

종교교육학연구 제18권. pp.165~188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전봉준의 동학혁명 종교교육사상 -반침략 민족전쟁에 대해-

盧泰久
(경기대학교)

요약

민족의 정치발전과 평화통일이 민족사의 당면과제라면 이는 한국종교교육학의 토착화로 우리 교육·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해결해갈 수 있다고 본다. 한국종교교육학의 토착화는 민중적 민족주의이념으로 하여 근대 민족국가 건설에 있다고 본다면 근·현대 한국민족주의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동학(혁명)사상에서 그 정치안정과 조화통일의 모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범위로는 한국의 종교교육을 위해 동학혁명발생의 역사적 필연성, 동학혁명의 성격과 특징, 동학혁명의 경험과 교훈을 반침략 민족전쟁의 연구에 초점을 두어 동학혁명의 반일투쟁을 위주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우리 스스로의 학문을 전개하기보다는 단지 잡화상식 지식 전달 시장의 수준에 머물러 서구의 이론을 소화하는데 급급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성과 도덕과 정신적 지주로서 한국의 지성계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 주제어: 전봉준, 동학혁명, 범제신관, 인내천, 보국안민

I. 머리말

본고는 한국의 종교교육을 위해 그리고 가능하면 바람직한 한국종교교육학의 패라다임을 모색해보기위한 시도으로써 전봉준의 동학혁명의 종교사상을 고찰해보기로 한 것이다. 그 연구자료로서는 갑오농민전쟁 100주년을 맞아 출간된 평양의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의 기념논문집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한국의 경우는 이념사나 사상사보다는 사실 위주의 운동사 위주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발전의 도상에서 전환적 계기를 열어놓은 동학혁명은 동학 교도들의 주도하에서 일어난 대규모적인 농민전쟁이었다.¹⁾ 동학혁명을 지휘한 전봉준은 전쟁발발 10년 전인 30세에 동학교에 입교한 독실한 교도였으며 농민군지휘자들인 손화중, 김개남 등은 동학의 접주들이었다.

동학혁명은 동학의 사회정치적 이념인 ‘광제창생(廣濟蒼生)’ ‘보국안민(輔國安民)’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구호 밑에서 전개되었다. 이렇게 볼 때 농민혁명을 동학혁명이라 부르며 농민군이 ‘동학군’으로 불리우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동학혁명의 발생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구명하고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정확히 알자면 동학의 철학적 기초와 이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학사상은 조선봉건사회의 붕괴기 농민대중을 기본으로 한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민족적인 종교철학사상으로 발생하였다. 계급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일정한 계급이나 계층에 속하여 살며 활동하기 마련이다. 모든 사상이론가, 혁명가들은 일정한 계급의 사상적 대변자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봉준의 정치지도력을 중심으로 동학혁명이 발생하게 된 사회경제적 요인과 역사적 배경, 동학의 철학적 기초와 정치적 이념, 갑오동학농민군의 반일구국을 위한 거족적인 항쟁호소와 반일투쟁, 그리고 동학혁명의 특징과 교훈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II. 동학혁명발생의 역사적 필연성

19세기 중엽이후 봉건적 학정으로 인하여 격화된 계급적 모순과 외래자본주의 침략으로 인하여 조성된 민족적 위기는 억압받고 천대받는 인민들로 하여금 봉건체도를 뒤집어엎고 외래자본주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2003년도 경기대학교의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리종현, 〈최제우와 동학〉, 《갑오농민전쟁 100돐 기념논문집》,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94, 22쪽

이것이 바로 전봉준 등에 의해 주도된 동학혁명을 낳게 한 객관적 요인이었다.

그러나 투쟁은 객관적 정세가 조성되었다고 하여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와 함께 정세의 요구를 자각한 투쟁역량이 장성하는 과정, 내적인 발전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인민들은 자기들을 파산 몰락시키고 생존의 길까지 막아버리는 봉건적 악정에 대한 원한과 증오에 차넘쳐 있었다. 1881년 봄에 유생 황재현이 국왕에게 낸 상소에서 “8도의 감사들과 각 고을의 원들은 모두 다 옳은 정사는 할 줄 모르고 백성들의 재물을 밑바닥까지 긁어서 빼앗기만 일삼으므로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다 물과 불 속에 빠져서 ‘이놈의 세상이 언제나 망하려고’ 하는 형편이다”라고 한 것은 당시의 인민들의 심증을 반영한 것이었다.²⁾

동학혁명과 같은 큰 규모의 투쟁은 반침략 반봉건투쟁을 시대적 요구로 자각한 투쟁역량이 장성 강화되어온 결과에 의해 폭발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근대 전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벌어진 반침략 반봉건투쟁은 인민들의 계급적 민족적 각성이 높아지고 조직화되어가는 과정, 투쟁역량의 내적 준비과정이었다.

예로부터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여온 우리 인민은 1860년대에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자본주의 열강의 무력침공을 물리친데 뒤이어 1870년대 중엽에 들어서면서 개항을 강요하고 침략의 독수를 뺏치는 데서 앞장서 날뛰는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분연히 일어났다.

1875년 8월 일제의 침략적인 운양호사건 때부터 우리 인민의 반침략 투쟁기세는 <고종실록>에 “오늘 백성들의 의향은 모두 한번 싸우겠다고 한다”, “서울로 올라온 포수들은 분개하여 죽을힘을 다하여 싸우려 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의 심정은 의논하지 않아도 같게 되었다”고 쓴 것처럼 매우 비등하게 되어 있었다.³⁾

인민들의 반일투쟁기세가 높아가고 있던 1882년(임오) 6~7월에는 애국적 군인들과 서울시민들이 민씨 정권을 완전히 제압하고 일본 침략자들을 서울에서 모조리 쫓아낸 군인 폭동이 일어났다. 임오군인폭동은 개항후 우리 인민이 벌인 첫 대규모의 반침략 반봉건 투쟁이었다.

그에 뒤이어 1889년과 1891년에는 서울 상인들이 일본 및 청나라 상인들을 철수시킬 것을 봉건정부에 요구하는 집단적인 투쟁을 벌였다. 전국적 규모로 각계각층 백성들의 반침략 반봉건 투쟁이 강화되면서 농민대중의 봉기가 끊임없이 벌어

2) <고종실록> 권18, 18년 3월 23일.

3) 원종규, <갑오농민전쟁발생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역사적 필연성>, 《갑오농민전쟁 100년 기념논문집》,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94, 16쪽.

졌다. 1864년부터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전해인 1893년까지의 기간에 일어난 농민들의 봉기정형이 <고종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에 기록되어 있다.

전봉준이 동학혁명을 주도하기 전의 농민봉기들은 주로 군, 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각기 분산적으로 벌어졌다. 그것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스스로 각성된 군중은 있었으나 그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할만한 지도세력이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지역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분산되어 일어나고 있던 농민운동을 통일적인 집단세력으로 묶는다면 큰 힘을 낼 수 있는데 바로 그 역할을 애국적 성격을 가진 민족종교인 동학이 수행하였다.

1860년에 수운에 의하여 창시된 동학은 그의 반침략·반봉건적 사상으로 농민대중 속에 급속히 퍼져갔으며 1880년 말에는 조선의 거의 전지역에서 수십만명의 동학교도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동학은 지역별로 ‘포’를 두고 포의 관리자인 접주들을 통하여 동학교도들을 관리하는 자체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의 투쟁이 전봉준에 의하여 동학의 지도와 결합됨으로써 1890년대까지 각지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인민들의 투쟁은 마침내 1894년에 대규모적인 농민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개항이후 민족적 그리고 계급적 모순이 더욱 더 격화되고 있던 당시의 역사적 조건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Ⅲ. 동학의 종교철학적 기초

동학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철학적 세계관으로 조선의 반제 반봉건 민족해방투쟁사의 서막을 사상·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애국애족 정치사상이다. 동학은 조선에서 물질적인 ‘기(氣)’를 세계의 시원으로 보는 유물론철학의 우수한 전통과 사람에 대한 견해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사상·이론적 기초로 삼고 여기에 우리 민족 고유의 ‘仙’에 관한 사상과 민간신앙들을 계승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대에 물질적인 ‘기’를 세계의 시원으로 보고 ‘기’에 의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을 고찰하는 유물론 철학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유물론적 철학사상은 중세기에 이르러 서방과는 대비할 수 없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동학은 이러한 세계의 시원을 ‘기’로 보는 ‘지기(至氣)’를 세계의 시원으로 하는 ‘지기’일원론적 철학사상을 전개하였으며 이미 고대시기부터 사람을 세상만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영특한 존재로 보는 전통적인 고찰방법을 계승하여 ‘인내천

(人乃天)’에 관한 독특한 사상을 제기하였다. 이밖에도 동학은 예로부터 불행과 고통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이상사회에 관한 전통적인 사상을 계승하여 ‘광제창생’ ‘지상천국’에 관한 사상을 내놓았다. 이것은 동학이 우리 민족고유의 우수하고 진보적인 사상유산을 원천으로 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⁴⁾

동학은 민족자주의식 발전의 필연적 산물이다. 구미자본주의 열강들의 침략의 길잡이로서의 천주교의 침입으로 인한 민족위기의식의 증대와 주자성리학의 쇠퇴로 인한 민족자주의식의 발전은 동학발생의 합법칙적 계기로 중요한 사상적 원천이 되었다.

동학은 사람과 하느님과의 상호관계문제를 철학의 기본문제로 제기하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견해, 즉 ‘인내천’의 견해를 내놓았다. ‘인내천’이란 문자 그대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과 하느님과의 상호관계를 논한 것으로서 동학사상의 철학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동학에서의 사람과 하늘과의 상호관계문제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문제가 아니며 사람과 하느님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동학은 우선 사람의 발생원인을 초자연적인 창조신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종교목적론적 견해를 부정하고 사람은 ‘지기’를 시원으로 하여 천지만물과 같이 오랜 기간에 걸치는 우주자연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수운은 인간이 발생하기 이전에 음양이 처음 갈라지고 끊임없이 변화하여 세상 만물이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 사람도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때문에 사람도 근본시원을 따지면 천지만물과 같은 ‘지기’로 된다고 보았다. 해월도 “하늘, 땅, 사람은 모두 하나의 理氣일 뿐이다”(〈천지인 귀신음양〉)라고 하였다. 우주만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영특한 존재라고 인정하였다. 수운은 “음양이 서로 조화되어 비록 백천만물이 변화발생하였으나 그 가운데 홀로 오직 사람만이 가장 영특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3재(하늘, 땅, 사람) 가운데서 오직 사람이 귀중하며 만물 가운데서 오직 사람만이 가장 영특하다”(〈동경대전〉 경신강서)라고 하였다. 해월은 만물은 기로부터 발생하고 사람은 오행의 뛰어난 기(〈천지부문〉)라고 하였다. 이것은 동학에서 사람을 모든 사물현상과 같이 ‘지기’의 산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결코 다른 만물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주조화과정의 가장 발전된 존재로 가장 뛰어난 존재로 보았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동학은 또한 사람이 만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영특한 존재이므로 만물의

4) 양만석, 〈동학의 철학적 기초와 정치적 리념〉, 《갑오농민전쟁 100년 기념논문집》,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94, 40-62쪽.

주로 된다고 보았다. 동학에서는 선행시기 사람에 대한 견해에서의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을 자기의 독특한 체계에 맞게 계승 발전시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철학적, 세계관 형성발전에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동학의 ‘인내천’사상은 ‘하느님’, ‘하늘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동학에서는 자연 밖에 있는 초자연적인 ‘인격신’으로서의 ‘하느님’이나 ‘하늘신’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다.⁵⁾

해월은 수운의 ‘인내천’사상을 계승하여 ‘인시천(人是天)(사람이 하늘이다)’, ‘인시천인(人是天人)(사람은 하늘사람이다)’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천지인’, ‘귀신음양’이라는 글에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며 하늘은 곧 사람이니 사람밖에 하늘이 없고 하늘밖에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범신론적인 것이다.⁶⁾

그러나 ‘인내천’에서 발현된 이러한 범신론적 성격은 사람을 우주만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영특한 존재로 내세우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씌어진 것으로 사람이나 세계밖에 존재하면서 세계의 창조자, 지배자로 되는 목적과 의지를 가진 신적 존재가 아니며 인간에 의하여 종교적 외피를 쓴 신적 존재도 아니었다.

동학의 ‘인내천’사상은 또한 ‘지기(至氣)’일원론에 기초하고 있다. 동학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사물현상, 천지만물이 우주공간에 가득 찬 ‘지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사람도 포함하여 천지만물이 다 ‘지기’로부터 발생하고 ‘지기’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동학에서의 ‘지기’는 선행한 기일원론에서와는 달리 ‘지기’에 신령스러운 속성을 부여하여 어떤 일이나 간섭하지 않음이 없고 어떤 일이나 명령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물질적인 기에 신적인 성격을 부여한 것으로서 ‘지기’의 물질성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없으며 동학으로 하여금 범신론적 성격을 면할 수 있게 한다. 동학은 ‘지기’는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지만 물질적인 것은 동시에 정신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자연도 사람도 신도 모두 ‘지기’로 만들어졌다고 인정하였다. 동학의 이러한 견해는 모두 물체에 성품이 있다고 주장하는 영혼설의 일종으로서 범신론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영혼설은 불가불 숙명론에 떨어지게 되며 인간의 자주의를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기’의 이러한 속성은 유교나 천주교에서처럼 물질적 실체 밖에 있으면서 물질운동을 주관하는 외부적 요인으로서의 작용이 아니라 물질적 실체 안에서의 ‘지기’의 기묘한 작용을 의미한다. 이것은 당시 근대 자연과학의 발전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동학창시자들의 지식 능력과 함께 주요하게는 동학을 신비화함으로써 숭배심을 높이려는 것과 관련

5) 상계서, p.41.

6) 상계서, p.47.

되어 있다.⁷⁾

여기서 동학의 신관을 동양종교의 범신론과는 달리 일원론적 다신관이랄까 범신론적 일신관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 김상일교수는 범재신관(汎在神觀)(pan-en-theism)이라고 부른다.⁸⁾

동학에서는 ‘지기’로 이루어진 자연세계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하다고 표현하였다. ‘무궁’이란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무극’이란 공간적으로 무한한 것을 표현한 것이었다.

동학은 ‘지기’로 이루어진 자연세계가 그 어떤 외부적 요인의 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변화해 간다는 것이다. 동학의 무위이화(無爲而化)는 사물현상들의 운동변화가 자연적으로 스스로 진행된다는 것과 운동변화의 원인이 사물 자체에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학의 이러한 견해에는 우주세계의 사물현상들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발생, 발전, 소멸과정을 거치며 대립물이 서로 전화하는 것은 자연세계 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에 합법칙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상이 담겨져 있다. 동학은 바로 이러한 원리로부터 당시의 부패한 봉건사회는 끝장나고 반드시 새로운 ‘이상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개벽’에 관한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근근대중을 봉건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추동 독려하였다.

이상과 같이 동학은 사람과 ‘하느님’과의 상호관계문제를 철학의 기본문제로 제기하고 ‘인내천’에 관한 사상을 제기함으로써 유교나 천주교를 비롯한 선행 종교 철학들에서 천상의 세계로 끌어올려 우상화하고 숭배하던 ‘하느님’을 맨바닥에 끌어내리고 사람의 지위를 ‘하느님’과 동등한 위치에 끌어올리는 등 철학에서의 새로운 신관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여기서 21C형 신종교, 신철학인 유기체적인 범재신관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⁹⁾

동학은 궁극적으로 ‘인내천’의 원리와 ‘지기’일원론에 기초하여 사람들 상호관계문제를 새롭게 해명하였다. 사람은 다같이 ‘지기’의 산물이라는 ‘지기’일원론에 의하며 사람 상호간의 관계문제에서 다같은 ‘지기’의 산물로 평등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의 원리에 의하면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상호관계를 맺을 때에 사람을 하늘과 같이 받들고 평등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인내천’의 사상은 또한 인간을 우주진화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보며 사람 외에 그 어떤 신적인 존재나 부자연스러운 우상을 놓지 않는다. 여기에는 사람 상호간에 절대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7) 상계서, p.50.

8) 김상일, 《수운과 화이트헤드》, 서울: 지식산업사, 2001.

9) 최민자, 〈수운과 원효의 존재론적 통일사상〉(2003, 동학학회 발표글).

한다는 사상이 담겨져 있다.

IV. 동학의 종교교육이념

동학사상은 ‘인내천’의 원리, 인간평등에 관한 사상으로부터 ‘광제창생’, ‘지상천국’의 반봉건사상과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반침략사상을 정치이념으로 내세웠다. 동학은 ‘광제창생’, ‘지상천국’을 기본취지로 하여 근본이념을 제기하게 된다.

‘광제창생’은 봉건통치의 질곡 속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이며 ‘지상천국’은 사람들이 천상세계에서만 그려보던 착취없고 압박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상사회를 지상에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동학이 이상으로 내세운 ‘지상천국’은 어떤 사회였는가? 동학의 ‘지상천국’은 우선 봉건적 불평등과 차이가 없는 평등한 사회였다. 수운은 출신지방과 문벌에 따르는 차별, 양반과 상민, 부귀빈천과 주종관계, 남녀관계에서의 온갖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었다(<용담유사> 도덕가, <천도교창건사>제2편 6장).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기를 타고났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한데 여러 가지 불평등이 생기는 것은 다 사람이 정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일체권력과 재부, 특권을 거부하였다. 해월은 수운의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여 원래 한울에 의해 정해진대로 한다면 사람들 사이의 차별과 불평등이 있을 수 없는데 모든 불평등은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하였으며 양반과 상민의 차별과 적서차별은 나라의 두 큰 태풍으로 양반과 상민의 차별이 있는 것은 나라가 망할 근본이고 적서차별이 있는 것도 집안이 망할 근본이라고 하였다.

동학의 ‘지상천국’은 또한 불안과 고통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일하며 행복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사회이다. 동학의 ‘지상천국’은 또한 누구나 불로장생하고 불사의 경지에 이르는 사회였다. 수운은 <용담유사>의 ‘안심가’에서 불로장생을 절대적 권력이나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선약’, ‘불사약’에 대하여 긍지높이 노래하였다. 물론 이것은 비과학적이긴 하나 동학에서 이상향으로 ‘지상천국’이 불로장생하는 사회라는 것을 말하여주고 있다.

동학의 ‘지상천국’은 이밖에도 ‘천도’가 구현되어 질서정연한 사회이며 온 세대가 모두 개벽되어 외부적인 침략이나 구속이 없는 사회였다. 동학의 ‘지상천국’에 관한 사상은 공상적으로나마 이상사회를 그려보았다는데 긍정적 의의가 있으며 당시 봉건통치제도의 압제에서 자주성을 극도로 유린당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새

사회를 동경하면서 투쟁으로 나아가게 한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동학사상은 ‘광제창생’, ‘지상천국’을 실현할 방도도 제기하였다. 수운은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동학을 실현하는 것이며 동학의 끝없는 ‘운’을 파악하고 사회와 사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험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도를 사람과 사회를 개혁시키는 데서 찾는 것은 진보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학에서는 사람과 사회를 개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도는 제기하지 못하였다.¹⁰⁾

동학은 ‘광제창생’, ‘지상천국’의 주요한 방도의 하나를 ‘포덕천하(布德天下)’에서 찾았다. ‘포덕천하’란 온 세상에 덕을 펼친다는 것이다. 수운은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을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에서 찾았다. 이로부터 그는 동학으로서 새로운 도덕과 윤리를 바로잡고 그것을 온 천하에 펼친다면 중생을 구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신선이 되는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모든 사람들이 동학을 알고 그에 기초하여 정신도덕적 생활을 개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지상천국’의 실현을 혁명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포덕천하’라는 도덕적인 교화방법으로 실현하는 것으로서 사회의 본질을 사회제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덕생활에서 찾는 비과학적인 견해이다. 동학의 이러한 견해는 개혁에 관한 사상은 사회제도의 개혁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덕적인 개혁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사회의 면모를 일신시키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¹⁾

동학은 또한 반침략적인 ‘보국안민’, ‘척양척왜’를 자기의 주요한 정치적 이념으로 제기하였다. ‘보국안민’이란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이고 ‘척양척왜’란 서방자본주의 침략자들을 내쫓고 일본침략자들을 내쫓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것은 외세를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다.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사상은 ‘광제창생’, ‘지상천국’사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도탄 속에 빠져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누구나 다같이 행복하게 사는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은 외세의 간섭과 침입을 막아내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광제창생’하고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데서 ‘보국안민’, ‘척양척왜’는 필수적이고 선차적인 초미의 문제였다.

동학의 ‘광제창생’, ‘지상천국’,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반봉건 반침략적 평화이념

10) 상계서, p.56.

11) 상계서, p.57.

은 그 후 동학혁명에서 뚜렷이 표현되었다. 동학농민군은 반봉건적인 ‘광제창생’의 구호를 들고 봉건지배층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였고, 농민봉기를 계기로 외세가 침입해오자 봉건지배층을 반대하는 투쟁을 뒤로 미루고 반침략적인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기치아래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데로 투쟁의 예봉을 돌려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동학의 발생형성은 커다란 정치사상적 의의를 가진다. 동학의 형성은 우선 사람과 ‘한울님’과의 상호관계문제를 철학의 기본문제로 제기하고 종래의 철학에서 신성화되었던 ‘한울님’의 지위를 지상으로 끌어내리고 사람의 지위를 ‘한울님’의 지위에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천주교나 유교를 사상이론적으로 극복하는 데서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놓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동학사상의 형성은 또한 반봉건적이며 반반침략적인 ‘광제창생’, ‘지상천국’, ‘보국안민’, ‘척양척왜’를 정치적 이념으로 제기함으로써 조선의 근대 반봉건 반침략투쟁의 발단을 사상·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동학의 정치이념은 또한 외래종교에 의하여 부식되었던 사대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자주의식을 확립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V. 동학혁명의 반일투쟁

이조 봉건국가의 자주권은 일본군국주의에 의하여 완전히 유린되고 온 강토가 전쟁마당으로 전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의 정치군사정세에 대해서 동학혁명군의 총지휘자 전봉준은 외면하지 않았다.¹²⁾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의 애국적 호소에 호응하여 각지에서 기의한 군중들 가운데는 농민 뿐만 아니라 수공업자, 상인들과 일반 양반들과 유생들도 있었다. 당시 농민군의 거족적 반일항쟁호소에 이처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들에서 각계각층 인민들이 호응해 나선 것은 그전 시기에 볼 수 없던 일이었다. 이것은 애국애족의 사상에서 출발한 농민군의 거족적 항쟁호소가 정당하였다는 것과 함께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전봉준은 이조 봉건정부 안의 친일관료들에 대해 준열히 비판하고 동시에 이제라도 자신들을 뉘우치고 반일구국항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봉준은 충청감사에게 보내는 격문[1893.10.16(양력 11월13일)]에서 조선의 대신들에게 일본침

12) 강석희, 〈일본군국주의는 갑오농민전쟁의 교살자〉, 《갑오농민전쟁 100돐 기념논문집》,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94, 149쪽.

락자들을 조국 땅에서 내쫓지 않고서는 신하들은 물론 국왕의 권세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 실례를 들어 깨우쳐주고 나라가 외래침략자들에게 짓밟히면 그 어느 계급과 계층도 편안할 수 없으니 통치배들도 동학군과 마음을 합쳐 반일 구국항쟁을 벌이라고 호소하였다.

전봉준이 내놓은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온 민족이 단결하여 싸우자는 거족적 항쟁호소는 민족적 양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다. 그리하여 동학군을 반대하여 출동하였던 정부군의 지휘관들까지도 적지 않게 농민군 측에 의거하여 왔다.

농민군토벌을 위하여 공주에서 수천명의 군대를 편성하자 이유상과 김윤식이 동학군에 합류하여 왔다. ‘창의장’으로 자처해 나섰던 이유상은 의거하여 오자 직접 충청감사 박계순에게 글을 보내어 동학군과 싸울 것이 아니라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권고하기까지 하였다. 여산부사 겸 영장인 김윤식은 농민군에 의거하여 올 때 부패한 정부의 편을 돕느니보다 차라리 민중의 편을 도와 나섬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했다.¹³⁾

농민군의 애국적 호소는 이처럼 정부군과 일부 하급관리들, 유생들, 양반들까지도 거족적인 구국항쟁에 떨쳐나서게 하였다. 그러나 정부군은 이미 일본침략자들의 통제 밑에 있었으므로 농민군의 호소만으로는 그들을 돌려세울 수 없었다. 그리하여 결국 농민군은 일본침략자들의 발악적인 탄압과 함께 정부군의 ‘토벌’을 계속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조봉건정부가 동학농민군의 그토록 절절한 애국적 호소에 끝가지 호응해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조 봉건 지배층들이 농민군의 애국애족적 호소에 호응해 나서지 않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라와 민족 앞에 닥쳐온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위기는 동학혁명 총지휘자 전봉준으로 하여금 외적의 대규모 침략에 직면하는 엄중한 사태앞에서 봉건정부군과 상대하면서 혈전을 계속 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가능하다면 무혈철수로 점거한 전주성을 관군에게 내주어 정부의 체면을 세우게 하자는 마음을 먹게 하였다. 또한 사태는 그로 하여금 정부군과의 혈전을 그만둠으로써 청·일 두 나라에 더는 조선 출병의 구실을 주지 말고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자는 결심을 내리게 하였다. 이리하여 전주화의가 이룩되고 농민군은 5월 8일(양력 6월 11일)에 전주성의 동문과 북문을 열고 일제히 철수하였으며 그 대신 관군이 입성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일본군국주의는 동학혁명을 중단케 함으로써 그를 진압당하게 한

13)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40, 143쪽.

반혁명의 원흉이었을 뿐 아니라 또한 직접 그를 총포탄으로 무참히 진압한 농민군의 원수 농민전쟁의 교살자였다. 여기서 갑오년 후반기로부터 전개되는 동학혁명의 반일투쟁의 과정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자.

갑오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일본은 공사관과 영사관,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 밑에 1894년 6월 9일 우리나라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 침공을 감행하였고 전주화의로하여 저들의 출병구실이 성립될 수 없게 되자 엉뚱하게 ‘내정’개혁을 강요하면서 군대를 동원하여 주권의 상징으로 신성시해오던 이왕조의 왕궁을 점령하였다. 이어 청일전쟁을 도발하고 조선강토를 유린하였으며 8월 중순 평양전투 승리후에는 무력을 동학농민군 탄압에 돌리었다.¹⁴⁾

일제의 침략은 백성들의 분노를 야기시켜 동학군으로 하여금 다시금 투쟁에 나서게 하였다. 1894년 9월 중순 동학군이 다시 투쟁에 궤기한 때로부터 그 해 말까지는 동학혁명의 제2단계에 해당한다. 이 시기 동학농민군은 일제침략군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농민군은 보다 방대한 규모로 그 대열이 확대되었으며 공주대격전과 같은 대규모적이고 가장 격렬한 싸움을 벌이였다.

동학군은 전봉준의 지휘 밑에 일본침략군과 대결할 결전준비를 효과적으로 진척시켰다. 전봉준은 농민군의 배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김개남이 지휘하는 부대 5000여명을 3남지방의 중심지인 전주에, 손화중과 최경선이 지휘하는 부대를 전라도 광주지방에 각각 배치하였고, 최한규가 지휘하는 부대 3000여명을 공주의 유구방면으로 진출시켜 전봉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김복용, 이희인이 지휘하는 부대 3000여명을 목천(충남 천원군) 세성산에 배치하여 우익으로, 박덕철이 지휘하는 부대 7000여명을 충주, 여산 방면으로 파견하여 좌익으로 삼았다.

이러한 부대배치는 이미 농민군이 장악한 지역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주력부대의 서울 진격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군사적 조치였다. 전투준비를 끝낸 농민군 주력부대는 전봉준의 지휘 밑에 드디어 이해 10월 중순 논산을 출발하여 진격을 개시하였다. 농민군은 서울 진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먼저 공주를 점령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공주가 당시 농민군 진압에 동원된 일본침략군과 관군의 토벌거점이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이렇게 공주를 중심으로 철통같은 방어전을 펴고 이곳에서 농민군의 북상을 가로막아 나섰다. 그리하여 논산을 떠난 주력부대는 공주를 공격할 목표 밑에 공주 남쪽 40리 지점인 경천점(공주군 월암리)에 도착하여 진을 쳤다. 이 무렵

14) 김정수, <갑오농민군의 반일투쟁>, 《갑오농민전쟁 100년 기념논문집》,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94, 125쪽.

전라도는 물론 경기, 충청도의 여러 고을은 충주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민군이 차지하고 크게 기세를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공주성의 일본침략군과 관군은 그 위압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격전을 앞두고 공주의 산과 들은 모두 농민군이 차지하였고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일제침략군과 관군은 농민군의 포위 속에 공포에 떨며 위축되고 있었다. 공주가 농민군에게 삼면으로 포위되자 일제의 주력과 순무영 선봉부대가 공주에 몰려왔다. 그리고 공주방어를 지휘하기 위하여 조선침략의 악명높은 괴수의 하나인 일본공사 이노우에가 공주에까지 잠입하였다.

농민군은 적의 공격기도를 견제하여 먼저 공격으로 들어갔다. 성난 파도처럼 진격하는 동학농민군의 대오는 천지를 진감시켰다. 전봉준의 지휘 밑에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연이어 완강한 공격을 하였으나 이미 적들이 고지의 유리한 진지를 차지하고 대포와 저격무기로 집중사격을 퍼부어 농민군의 진영을 가로막았다. 이런 전투상황 속에서 농민군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해질 무렵 싸움은 승부없이 일단 끝나고 농민군은 출발지점인 경천점까지 물러났다. 그러나 일제의 강력한 포화격 앞에 농민군이 당한 피해는 막심하였다. 특히 주공방향인 우금치 방면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일본의 <관보>(갑오년 11월 29일)는

“일본군과 관군이 산등에 올라서 일제히 총탄을 퍼붓고 다시 안쪽으로 몸을 숨기고 적(농민군)이 고개를 넘고저 하면 또 산등에 올라 총탄을 퍼붓는다. 이렇게 하기가 40-50차례나 되니 시체 쌓인 것이 산에 가득 차다”

라고 전하였다. 이것은 농민군이 많은 희생을 내면서도 얼마나 과감하게 싸웠는가를 잘 말하여 준다.

제2차 공주공격작전의 실패에서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본 전봉준은 11월 12일 중앙정부군과 감영군에 호소문을 보내서 나라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일본침략군을 배격하자고 다시금 호소하였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의 애국애족적 입장에서 농민군과 관군이 연합하여 반침략투쟁을 벌이자고 절절하게 호소하였으나 이미 일제의 통제 밑에 들어간 관군의 반인민적이며 배족적인 태도를 돌이킬 수 없었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차후의 투쟁을 계획하면서 일시 전면적인 후퇴를 하게 되었다.¹⁵⁾

공주 우금치에서 밀려난 해몽(海夢)(전봉준의 호)이 거느린 농민군의 주력부대

15) 상계서, p.134.

는 호성, 은진(충남의 논산군)방면으로 후퇴하였다. 이 때 모리소대위의 일본침략군의 대부대와 관군부대가 농민군의 뒤를 계속 추격하였다. 이리하여 원평, 태인, 계선의 전투들에서 적들에게 타격을 안긴 다음 해몽은 투쟁방법을 바꾸고 농민군 대오를 해산하기로 결심하였다. 그것은 적들의 발악적인 추격이 계속되는 조선에서 우세한 적과 힘에 부치는 전투를 계속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며 정면 충돌의 방법으로는 농민군부대를 계속 유지할 수도 대오를 다시 확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타산한 데 기초한 것이었다.

11월 말에 이르러 농민군은 일시 대오를 해산하고 비공개적인 투쟁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해몽은 농민군해산을 선포하고 적은 인원의 직속부대만을 거느리고 태인에서 천원역을 거쳐 11월 29일 립암산으로 갔다가 다시 순창으로 옮겨갔다. 그는 이곳에서 변화된 정세에 맞는 보다 조직적이며 대규모적인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는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시켜 나갔다. 그러던 가운데서도 황해도 농민군의 해주전투는 충청도 농민군의 청산 종곡전투와 함께 갑오동학혁명의 마지막 장을 장식한 큰 전투들이었다.¹⁶⁾

이리하여 동학농민군의 조직된 부대로서의 활동은 일제의 무력간섭과 야수적인 탄압만행으로 인하여 호남, 호서, 영남, 해서, 관동의 전지역에서 종식되게 되었다. 이로써 것처럼 전국을 휩쓸며 부패한 봉건통치를 밀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았고 일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 거족적인 동학혁명은 우리 인민의 근대 투쟁역사를 빛나게 장식하고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일본침략자들은 동학혁명을 탄압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그들은 동학군을 진압한다는 구실아래 동학군은 물론이며 그 동정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이르는 곳마다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능욕하였으며 거리와 마을을 불질러 잿더미로 만들었다. 애국의 성스러운 기치가 나무 끼었던 모든 고을의 마당과 길목들은 애국적 인민과 농민대중의 집단적 총살장으로 변화였다. 당시의 참경에 대하여 오지영은

동학군(농민군)으로서 관병, 일병, 수성군, 민포군에게 당한 참살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중에서 가장 참혹한 곳이 호남이었고 충청도가 그 다음이며 또한 경상, 강원, 경기, 황해 등 여러 곳에도 살해가 많았다. 전투 피해자를 계산하면 무릇 30-40만 이상에 달하였고 동학군의 재산이라고는 모두 관리의 것이 되고 가옥, 집짐승은 죄다 불속에 들어갔으며 기타 부녀강탈, 능욕 등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¹⁷⁾

16) 상계서, p.137.

라고 썼다.

이것은 애국적 인민들에 대한 일본 침략자들의 만행이 얼마나 잔인무도하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일제의 발악적인 공격을 물리치는 수십 수백 차례에 걸치는 전투과정에서 전사한 농민군과 일인들의 만행으로 인하여 희생된 애국적 인민들의 수를 엄두에 둔다면 동학혁명기간에 30-40만의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결코 과장된 숫자가 아니다. 일제의 귀족같은 만행으로 하여 산천은 인민들의 붉은 피로 물들었고 수많은 마을과 거리들이 잿더미가 되었다.

동학혁명의 총지휘자였던 전봉준은 전라도 순창 피로리에서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다가 12월 2일 변절자의 밀고로 지방군의 기습을 받아 불행하게 체포되었다. 해몽은 자기 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농민군 지휘자답게 민족적 지조와 애국적 기개를 굽히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 그는 법관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항변하여

우리는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이니 탐학한 관리들을 없애고 그릇된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조상의 뼈다구를 우려 행악을 하여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를 없애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사람으로서 사람을 매매하는 것과 국토를 농락하여 사복을 채우는 자를 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나, 너희는 왜적을 이용하여 자기 나라를 해하는 무리다. 그 죄 가장 중 대하거늘 도리어 나를 죄인이라 이르느냐

고 준렬히 꾸짖었다.

그는 또한 갖은 악형을 들씩우려는 원수들에게

너는 나의 적이요, 나는 너의 적이다. 내 너희를 쳐없애고 나라일을 바로 잡으려다가 도리어 너의 손에 잡혔으니 너희는 나를 죽일 뿐이요, 다른 말은 묻지 말라. 내 적의 손에 죽을지언정 적의 법을 받지는 아니하리라.¹⁷⁾

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동학혁명의 위대한 지휘자였던 전봉준은 1895년 3월 29일 손화중, 최경선, 성두환, 김덕명 등 농민군 지휘자들과 함께 봉건정부로부터 사형을 언도받고 서울 감옥에서 사형당하였다.

그러나 침략자들은 그 어떤 만행으로도 조선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 동학군

17) 오지영, 전계서, 154-155쪽.

18) 상계서, pp.157-158.

은 신식무장을 갖춘 일본침략군의 야수같은 탄압으로 비록 조직적인 활동은 끝마쳤으나 일본침략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은 줄기차게 계속되었다. 고향에 돌아가 은신하고 있던 동학농민군 참가자들은 계속 동료들을 모아 각종 형태의 투쟁을 벌어나갔으며 혹은 산속으로 들어가 산발적인 투쟁을 계속하였다. 동학혁명은 거족적 구국투쟁이었으며 전례없이 강렬한 대중적인 계급투쟁이었다.¹⁹⁾

VI. 동학혁명의 성격과 특징

동학혁명은 투쟁규모가 전례없이 컸고 투쟁형식이 다양하였으며 투쟁수단이 근대적이었다. 동학혁명은 동학농민군의 수적 규모에 있어서나 지역적 범위에서 조선 역사에서 전례없이 크고 광범위한 것이었다. 혁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농민군의 수는 10여만명에 이르렀고 희생자만 하여도 30-40만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1467년 함경도 농민전쟁 때나 1811년 평안도 농민전쟁 때 농민군의 부대보다 몇 십배나 더 큰 규모이며 지역적으로도 거의 전국을 포괄하고 있었고 치열성에 있어서도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²⁰⁾

그러므로 동학혁명은 양적 규모에서도 사상최대의 농민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동학혁명이 이렇듯 큰 규모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혁명의 거족적 성격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당시의 신문보도에 “관군은 엄명을 내려 군량을 징수하려고 하여도 (농민들이) 전혀 응하지 않았으나 농민군은 징수하지 않아도 식량을 얻을 수 있었고 구하려 하지 않아도 능히 충당할 수 있었다”고 한 것은 동학혁명의 대중적, 거족적 성격을 뚜렷이 보여준다. 바로 이것으로 농민군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중이 비록 산발적이긴 하였으나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기의할 수 있었다.

동학혁명의 특징으로 농민군의 무장에서도 질적 변화가 있었다. 동학농민군은 초기에는 호미와 낫과 같은 쟁기를 기본무기로 하고 활, 창, 칼 등 채래식 무기를 이어 배합시켰으나 점차 관군 및 왜적과의 싸움에서 노획한 소총과 대포 등 근대적 무기들로 무장하게 되었다. 무장에서의 이러한 질적 변화는 동학혁명으로 하여금 근대형의 국내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였으며 또한 규모의 방대성과 농민군의 애국적 희생성 그리고 투쟁대상이 근대자본주의 정규군이었다는 사실로 하여 동학혁명은 우리나라 농민전쟁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농민

19) 김경수, 전계서, p.139.

20) 허종호, 상계서, p.175.

전쟁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도 우리는 북에서의 갑오농민전쟁의 명칭은 중국의 태평천국농민전쟁이 오늘날에는 태평천국(민족)혁명으로 승화하여 명명하듯이 민족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21C 새 천년의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도 이제는 그간에 북의 갑오농민전쟁이나 남의 동학농민운동이나 동학농민혁명으로 지칭하여 왔던 것을 이제는 과감히 동학(민족)혁명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동학혁명이 종교전쟁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도 기왕의 농민전쟁과 크게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의 하나로 된다. 우리 민족사에서 자주성을 위한 농민들이 무장폭동이 수없이 많았지만 종교지도자들이 폭동을 조직 지휘하고 종교교리가 투쟁구호를 결합시킨 예는 없었다.

동학혁명의 지휘자는 전봉준 이하 거의 모두 동학도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휘성원들의 명색은 법헌 최시형이 임명한 접주, 집사, 교장, 교수, 집강, 도집, 대정, 중정 등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동학조직을 이용하여 각지 동학포 조직들과 연계를 맺으면서 동학혁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갔다.

아래의 기록은 동학혁명이 동학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2세 교주 최시형이 재판정에서 전봉준을 아는가라는 재판관의 물음에 대하여 “모를 리가 있겠는가. 전봉준은 나의 제자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전봉준이 거사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를 리가 있겠는가. 갑오년의 일은 모두 내가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해월의 이 말은 그가 동학혁명의 책임을 자신이 다 지겠다는 교주다운 변론이었을 것이다. 현행 자료에 의하면 ‘고부민란’을 비롯한 초기농민폭동이 동학상층의 계획과 지령에 따라 일어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²¹⁾ 그리고 ‘보국안민’, ‘척양척왜’ 등 농민군의 투쟁구호도 동학의 기본교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시 말하여 농민군은 동학의 종교이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외세를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과 국민주권의 확립으로 ‘보국안민’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였으며 나아가서 ‘포덕천하’, ‘광제창생’으로 평화로운 세계, 지상천국을 이루어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동학혁명이 순수 동학운동으로 발생하고 발전한 종교전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학혁명은 어디까지나 부패무능한 봉건지배층의 전횡과 약탈에 항거한 농민들의 반정부 반외세적 대중투쟁이었다. 투쟁강령으로 제기된 내용은 명백히 현실적인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이었다.

이에 대하여 동학도인 전봉준 자신이 말하고 있다. 그는 폭동지휘자 가운데서

21) 상계서, p.177.

“이른바 접주는 모두 동학도였지만 그 밖의 성원은 다수가 충의지사였다”고 말하였으며 “고부봉기 때 동학과 원한을 품은 백성이 합쳐 있었지만 동학은 적고 원한을 품은 백성이 다수”였는데 장흥부사 이용태처럼 “봉기한 인민을 통털어 동학”이라고 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갑오농민전쟁을 동학혁명으로 지칭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동학이 미친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종교운동으로서의 ‘교조신원’운동은 동학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투쟁강령이 동학의 ‘인내천’, ‘보국안민’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척왜척양’의 민족자주정신은 ‘서학’에 대처한 ‘동학’의 본래의 성격,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혁명상층 지휘자의 대부분이 동학도들이었고 농민군 대오의 명령지휘체계가 명백히 서있었으며 상하간의 복종질서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는 것도 대체로 동학의 엄한 내부 규율과 종교적 질서와 관련이 있었다.

동학군은 투쟁모습에서도 매우 높은 정신적 품모를 보여주었다. 용감성과 희생성, 강인한 의지, 투철한 투쟁정신과 왕성한 투쟁기세들에서 동학군은 우리나라 농민전쟁사에서 단연 전례가 없는 위대성을 기록하였다. 때문에 초토사 홍계훈도 “적병(농민군)이 비오는듯한 탄우 속을 아랑곳하지 않고 창검을 휘두르며 고함지르고 용진하는 용맹에 대해서는 참으로 느끼는 바 있다”고 경탄을 표시했으며 <갑오약력>의 필자 정석모도 전주성 방어전투에서의 농민군의 용감한 투쟁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관군이 “황학산과 완산에 진을 치고 성을 내려다보며 … 대포를 쏘고 빗발치듯 총탄을 퍼부었는데 그들은 시체를 밟으며 전진하여 관군을 거의 패배시켰다”. 5월 6일 전라감사 김학진이 ‘화의’를 의논하기 위하여 전봉준을 성안에 초청하였을 때 “수성군졸들이 총, 창을 들고 좌우에 정렬”하여 위엄을 부렸는데 전봉준은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이 태연자약”하게 걸어 들어가 폐정개혁안을 접수시켰다.²²⁾

특히 농민군이 발휘한 열렬한 반침략 애국정신과 민족적 단결심은 그 이전 시기 반침략투쟁에 합류한 모든 농민군을 훨씬 능가한 것이었으며 나라를 근대적으로 개혁하려는 애국의 염원과 민족적 자각은 참으로 우리 농민전쟁사에 전례없는 숭고한 사상감정이었다.

동학도들이 통문에서

단군이 나라를 세운 이래… 어진 임금과 현명한 신하들이 속출하여 전장법도 예악교화가 뚜렷이 밝혀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인륜도덕이 가장 밝은 나라로

22) <갑오약력>, 《동학란기록》 상.

천하에 알려졌었는데 오늘 불구대천의 원수 왜적의 침략을 받아 위태롭게 되었으니 어찌 참을 수가 있으며 오늘의 위급한 국세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어찌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는가!

라고 한 것은 당시 농민군의 민족적 자각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취어〉동학인령 계사 3월 16일)

홍경래도 격문에서 단군의 후예로서 궁지에 대하여 말하였으나 그것은 서도 사람을 천시하는 정부의 차별정책에 항변하여 “관서지방이 단군의 고토이고 문물이 발전”한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로써 동학군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일본침략군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었고 역사에 특기할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만일에 동학농민군이 전술에서 실책이 없고 관군이나 왜군과 같은 현대적 무기로 장비만 갖추었더라면 역사는 다르게 발전하게 되었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동학혁명의 성격과 특징을 통하여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VII. 맺음말

동학은 당시의 봉건사회에서 본질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봉건 반침략적 성격으로 하여 당시 사회의 기본계급인 농민대중을 비롯한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나서게 하는 사회정치적 및 종교교육적 정신적 무기로 될 수 있었다. 1871년 이필제의 지휘 밑에 전개된 영해농민폭동과 특히 1894년에 동학의 중견 인물이었던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의 지휘 밑에 전개된 동학혁명은 그러한 사실을 확증해준다.²³⁾

그리하여 전봉준의 동학혁명은 다음과 같은 종교교육적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첫째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조선침략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일제는 무력침략을 동원시켜 굳게 닫힌 봉건조선의 문호를 강제 개방시켰다. 그 결과 19세기 80년 이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열강의 세력권 확장을 위한 각축장으로 변하였다. 여기에서 주되는 적수로 등장한 것이 청·일 두 나라였다. 일제는 1885년 <친진조약>을 체결하고 청나라의 조선침투를 제약해 놓은 후 장차 조선

23) 리국현, 상계서, p.39.

24) 강석희, 상계서, p.145.

에서 청나라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점적 식민지로 강점할 목적 밑에 ‘군비확장 100년 계획’을 짜놓고 무력증강에 광분하였다.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침략자들은 조선을 독점적 식민지로 강점할 수 없었다. 전봉준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침략자들의 무력간섭이 감행되자 그에 완강히 저항하였으며 전봉준은 주력집단이 해산된 후에도 분산된 역량으로 전국 도처에서 일본강점기지들에 대한 드센 공격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 일제는 당분간 조선에 대한 독점적 식민지강점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²⁵⁾

둘째로, 전봉준의 반침략투쟁의 의의는 동학혁명이후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도 고무 고취하였다는 데 있다. 열악한 무장장비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동학군은 그 당시로서는 최정예무기로 장비한 일본침략군과 당당히 맞서 싸웠다. 그 과정에 농민군의 희생도 적지 않았으며 일본 침략군의 인적 및 물적 손실도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가 호언장담한 것과 같은 ‘무적의 황군’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선인민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리하여 농민전쟁이 실패한 후에도 조선인의 반일투쟁은 각종 형태로 면면히 계승발전하였다. 1895-1896 반일의병투쟁, 1905년부터 일제의 강점을 반대하여 근 10년간 전개된 반일 의병투쟁과 독립군의 투쟁이 그러한 사실을 역력히 확증해준다.

셋째로, 전봉준의 동학혁명의 종교교육적 의의는 반일 투쟁의식의 제고를 통해 조선인의 민족적 각성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일본군국주의의 명분없는 조선 출병, 조선에 대한 간섭과 농민군에 대한 탄압은 조선백성들로 하여금 일제의 호전성과 포악성, 끝없는 탐욕성을 똑똑히 체험할 수 있게 하였고 일제야말로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민족적 원수라는 것을 가슴깊이 새기게 하였다. 조선민중의 이러한 굳센 반일감정은 동학혁명을 끊임없이 벌이던 반일 반외세 투쟁의 사상정신적 원천이 되었다.

넷째로 한국의 종교교육을 위해 동학혁명의 정치사상사를 돌이켜 볼 때 투쟁이 승리하려면 반드시 시대를 대표하는 전봉준과 같은 선진세력의 옳은 지도를 받아야 되며, 반침략 민족전쟁을 두고는 혁명적 폭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동학혁명은 비록 투쟁강령에서의 제한성과 전략전술의 미숙성, 무장에서의 열등성으로 실패하였으나 인민의 반봉건, 반침략 투쟁과 나라의 근대화를 강력히 추진한 애국적, 진보적 성격으로 조선 역사를 발전시키고 근대조선의 역사를 빛나게 장식한 거대한 사건이 되었으며 중국의 태평천국혁명, 인도의 시파이폭동과 함께

25) 김경수, 상계서, pp.139-140.

아시아의 3대 향전으로서 19세기 아시아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새벽종을 크게 울린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 되었다.²⁶⁾

바로 이 때문에 우리 민족은 갑오 동학혁명의 ‘수리개’들이 간직했던 녀과 그들이 흘린 피를 귀중히 여기고 이 날을 뜻깊게 기념하면서 반제, 애국, 자주독립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는 것이며 동학혁명의 풍운의 총아 전봉준의 역량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한 점의 불꽃으로 조선 민족의 가슴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봉준의 동학혁명 종교교육사상은 21C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민족사의 당면과제로 되는 민족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세계일가건설로 인류를 평온하게 할 새 천년의 문명사상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동학란기록》

강석희, <일본군국주의는 갑오농민전쟁의 교살자> 《갑오농민전쟁 100돐 기념논문집》,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94.

김경수, <갑오농민군의 반일투쟁>, 《갑오농민전쟁 100돐 기념논문집》,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94.

김상일, 《수운과 화이트헤드》, 서울: 지식산업사, 2001.

리종현, <최제우와 동학>, 《갑오농민전쟁 100돐 기념논문집》,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94.

양만석, <동학의 철학적 기초와 정치적 리념> 《갑오농민전쟁 100돐 기념논문집》,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94.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40.

원종규, <갑오농민전쟁발생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역사적 필연성>, 《갑오농민전쟁 100돐 기념논문집》,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94.

최민자, <수운과 원효의 존재론적 통일사상>, 2003년 동학학회 발표물

26) 허종호, 상계서, p.179.

원고접수: 4월 6일 1차심사: 4월 27일 게재승인일: 6월 18일

연구자 소개

- ① 전공: 정치학 / 소속: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 ② 관심영역: 한민족의 정치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사상연구
 - ③ 주요논저: 《동학과 신문명론》, 《평화통일의 정치사상》, 《민족주의와 국제정치》
 - ④ E-mail: damahm@hanmail.net
-

Jeon, Bong-Jun's Religious Education Thought -Nationalist War against Imperial Aggression-

Noh, Tae-Goo
(Kyonggi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researches the problems of the nationalist war against imperial aggression relating to the Jeon, Bong-Jun's religious education thought of the Donghak Revolution. In order to unify Korean nation peacefully in Korean peninsular, the dealing with theme of the Korean nationalism for the anti-imperialism and anti-foreign forces seems to be more important and relevant. The issues of the anti-feudalism and anti-autocratic rule in Korean nationalism were treated in the area of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academy.

Usual persons speak that nationalism will be open nationalism. But in fact this open nationalism means internationalism which pursues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strong powers. Recently this nationalism is activating with the flag of globalization and new-liberalism as the neo-colonialism and neo-imperialism in itself. Accordingly for the hopeful independent and unifying country, Korea that experienced the colonial pressures and nowadays under the divided nations, has to adopt the lines of close(resistant, defensive) nationalism naturally.

This nationalism indicates that it keeps the sovereignty of the weak states among nations and proceeds to the cosmopolitanism of the mutual equality which includes the values of the peace, cooperation, and progress. The philosophical base of Donghak and uprising of Donghak Revolution are linked with just Korean Nationalism.

From now let us consider firstly the necessity of Jeon Bong-Jun's Donghak Revolution attaching to the Korean Democracy(Innaechonjui: 人乃天主義) which is the most Korean and universal thought of the religious education. And forwards this ideological character of Donghak Revolution elucidates the alternatives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Nation, and the way for the new civilization in the third millennium.

Key words: Jeon, Bong-Jun, Donghak's Revolution, Pan-en-theism, Korean Democracy, Korean Nationalism